

홈 > 지자체·정책 > 지역뉴스

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, '즐거운 상상 융합과학체험 프로그램' 운영

* 김정수 기자 | © 일력 2024.05.08 12:10 | 댓글 0

🔍 🔍 가 가

- 12월까지, 경기 특수교육·다문화 학생 등 초·중학생 대상 운영
- 학생 맞춤형 융합과학교육으로 과학적 현상 및 원리 학습 진행
- 지역 내 기관과의 업무협약(MOU)을 통한 협업 운영시스템 구축



'즐거운 상상 융합과학체험 프로그램'을 운영하고 있다. [사진=경기도교육청]

[포인트데일리 김정수 기자]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융합과학체험을 경험하기 어려운 도내 초·중학생 등 1,500여 명을 대상으로 '즐거운 상상 융합과학체험 프로그램'을 운영한다.

4월부터 12월까지 학교, 교육원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·다문화 학생,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 학교 총 40교를 우선으로 선정했다.

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방향인 '경기 학생 모두의 균형 있는 동반성장'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.

교육원은 이번 달 의왕정음학교, 부천상록학교, 용인다움학교 등 특수학교를 방문해 1인 1교구를 제공하고 학생 맞춤형 체험으로 과학적 현상과 원리를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할 예정이다.

또한 지역 내 컴퓨팅교사협회와 업무협약을 기반해 지난월부터 파주 파평초를 첫 시작으로 드림웍 차량을 활용한 지역 협업 운영시스템도 진행한다.

박정행 원장은 "경기교육 방향인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"라며 "경기 학생 모두가 미래의 꿈을 키우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하반기 재구조화하는 북부과학관에 보산초 다문화 특별학급을 비롯한 경기 지역 다문화 학생을 초청할 예정이다. 과학 전시물 체험, SW·AI교육 및 천체 관측 등을 통해 미래의 창의융합역량을 함양하는 시간 등을 준비하고 있다.